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성호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김정음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전공 학사과정)\*\*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주임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대학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인 D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 기피요인으로는 ‘창업실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 우선’ (24.9%), ‘창업지식 부족’ (13.4%)이며,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위가 기술개발 11.8%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의 필요성은 ‘창업 중’ > ‘창업 준비 중’ > ‘창업을사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필요 이유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23.9%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 내 창업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및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던 방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핵심주제어 : 대학 창업활성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정책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 2019년 8.9%로 최근 5년간 평균 9.4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국내 주요 대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은 큰 폭으로 증대되었지만, 고용인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3년간 매출은 6조 4000억 원이 증가했으나, 고용인원은 700명에 불과하였으며, KT그룹(2700명 감소)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200여명 감소)은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음에 불구하고 직원 수는 감소하는 등 대기업 주도의 고용 창출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CEO스코어, 2019).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창업지원 사업규모는 총 1조 4,51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336억 원(29.8%)이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창업활성화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고, 학점 교과과정에 창업과 관련된 강좌를 편성·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동아리활동과 창업 경진대회 등 창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대학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김춘호·양동우, 2018). 특히 교육부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학 내 창업교육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은 대학들이 지니고 있는 연구와 기술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넘어서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주, 2018; Good et al., 2018; Hayter et al., 2018; Miller &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의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lsh69041@gmail.com

\*\* 공동저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전공 학사과정, wjddmadlekf@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투고일: 2020-05-10 · 수정일: 2020-07-10 · 게재확정일: 2020-08-10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수요자, 지역사회, 교원, 전담조직 등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지 못하며, 체계적이지 않고 있다(홍종득, 2016).

또한 2016년 주요 20개국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한 연구(남정민·이환수, 2017)에서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이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전 영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을 비교한 연구(백서인, 2017)에서는 한국의 경우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적극성 결여와 지원정책의 단발성 그리고 과도하게 국내시장에 포커스 되어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 당 창업기업 수는 9.7개이며, 창업 강좌 이수학생 중 창업자 수는 0.41%,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중 창업자 수는 3.71%에 그쳤다(창업진흥원, 201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 그리고 창업경험여부에 따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국내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제도의 현황

### 2.1 국내 대학 창업교육 현황

#### 2.1.1 대학 창업교육 확대

<표 1> 창업강좌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은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노력이 맞물려 17년 11,828개이던 창업교육 강좌 수는 18년 13,905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4년제 대학이 7,761개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창업 강좌 수는 양적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형 강좌 수는 전체의 30%만을 차지하고 있어 실습형 강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창업강좌 현황

대학 구분별	강좌 현황	2017년			2018년		
		개설 대학수	총계	평균	개설 대학수	총계	평균
대학 (4년제)	이론 강좌	181	4,852	26.8	183	6,083	33.2
	실습 강좌	120	1,211	10.1	117	1,578	13.5
	전체	182	6,063	33.3	185	7,661	41.4

전문 대학	이론 강좌	130	4,497	34.6	131	4,651	35.5
	실습 강좌	81	1,268	15.7	93	1,593	17.1
	전체	131	5,765	44.0	131	6,244	47.7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2.1.2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2020년 국내 대학에서는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생의 학업단절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단위: 개)

제도명	사업 정의	2018년 적용 대학수	
창업 휴학제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252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창업 현장실습	110	219
	창업실습	109	
창업 관련학과	별도의 입학정원이 있는 창업 관련 학과(학부)	17	
창업 연계전공	별도의 입학정원은 없으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부·복수전공으로 인정되는 창업관련 전공	61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타 대학과 창업강좌와 관련된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타 대학의 창업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87	
창업 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82	
창업 특기생 제도	우수한 창업역량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제도(입학 전형의 명칭에 “창업”이 포함되어야 함)	6	
창업 대체논문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창업 및 창업 준비활동을 학위논문으로 대체하는 제도	-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표 2>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통해 기존 학문 중심이었던 대학들이 대학 내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전반적인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3>참고), 이는 아직까지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이수학생 수

(단위: 명)

제도명		2017년 이수학생수		2018년 이수학생수	
창업휴학제		565		674	
창업 대체 학점 인정 제도	창업 현장실습	412		580	
	창업실습	2,121		2,760	
창업관련 학과	입학정원	1,074	입학정원	1,105	
	복수전공	256	복수전공	318	
	부전공	92	부전공	91	
창업 연계전공	복수전공	711	복수전공	1,023	
	부전공	318	부전공	377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자교	2,379	자교	2,856	
	타교	2,189	타교	5,610	
창업장학금		5,537		5,665	
창업 특기생제도		81		86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2.2 국내 대학 창업지원제도 현황

### 2.2.1 모듈별 창업지원제도

창업진흥원의 대학창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학생창업 총 지원 금액은 171,86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하였다. 이렇듯 매년 창업지원금액은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은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1)모듈을 신규 설립·시행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4> 대학 창업지원모델

모듈(Module)	지원제도	
창업교과 및 비교과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행사, 창업박람회, 실전창업교육(SAP),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창업아카데미, 모의 크라우드펀딩대회, 창업인턴십	
창업사업화	창업보육입주시설, 전담멘토링, 시제품제작비 지원, 시험 및 성능검사, 고객반응 조사, 마케팅 및 판로개척, 네트워킹(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특허 및 법률, 가족기업 연결, 창업스카우터 지정	
지원인프라	임지	시제품제작터(메이커스페이스), 오픈창업공작소, 공용장비센터,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기술	창업R&D지원, 제품인증, 지식재산권, 홍보동영상,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
	자금 경영	창업자금, 창업투자, 대학창업펀드, 컨설팅, 경영자문(세무, 회계)지원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재구성

1) 모듈(Module)은 하나의 '구성단위'를 의미한다.

### 2.2.2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고 대학들도 변화된 수요에 발 맞춰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 내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지원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허선영 외(2017)에 따르면 현재 대학 창업지원제도는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사중복사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대학 현장 내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창업지원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표 5> 참고).

<표 5> 대학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문제점

지원사업	창업 지원 조직의 문제점
LINC 사업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 이후 창업 멘토링, 자금 지원, 창업보육 등 창업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으로 연계 보완이 필요 - LINC+ 사업단의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및 지원정도가 결정
창업보육센터	- 실질적인 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학 내 창업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 대학 내 낮은 위상, 인력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해 입주한 초기기업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수익사업 외에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창업지원단	-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대학생 창업자 발굴 한계 - 초기창업패키지 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 사업의 확산이 어려움
기업가센터	- 기업가센터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 사업의 확산이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교비, 기부금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출처: 김용태(2015), 대학 내 창업지원 주체간 연계방안 모델 연구

## III.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인식과 현황에 대한 설문분석

### 3.1 조사개요

국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인식과 현황을 바탕으로 대학창업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2019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D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800명)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N(%) = 800(100.0%)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성	240	30.0%
	여성	560	70.0%
연령	19세~24세	596	74.6%
	25세~30세	203	25.4%
	결측	1	-
학년	1학년	131	16.4%
	2학년	127	15.9%
	3학년	192	24.0%
	4학년	350	43.8%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35	29.4%
	상경계열	107	13.4%
	공학계열	173	21.6%
	자연계열	107	13.4%
	예체능계열	69	8.6%
	의학계열	107	13.4%
	기타	2	0.3%
창업경험	없음	759	94.9%
	있음	41	5.1%
창업기간 (N=41)	6개월 미만	20	48.8%
	6개월 이상-1년 미만	12	29.3%
	1년 이상-2년 미만	5	12.2%
	2년 이상-3년 미만	4	9.8%
진로계획	창업	52	6.5%
	취업	597	74.6%
	대학원, 유학 등	108	13.5%
	프리랜서	19	2.4%
	기타	24	3.0%
창업교육 경험	교과과정	30	3.75%
	비교과과정	81	10.12%
	교과/비교과과정(중복)	85	10.62%
	미수강	604	75.5%

### 3.2 설문조사 분석결과

#### 3.2.1 창업교육 참여유형에 따른 창업인식

창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적<sup>2)</sup>이라는 응답이 60.2%로 부정적이라는 응답<sup>3)</sup> 12%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중복 수강한 학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평균 3.92로 창업교육 미수강생(평균 3.65), 교과과정 수강생(평균3.47) 그리고 비교과과정 수강생(평균3.91)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고).

2) 긍정적 응답은 창업인식에 대해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의 총계(%)의 합을 의미한다.  
3) 부정적 응답은 창업인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의 총계(%)의 합을 의미한다.

<표 7> 수강실태별 창업인식

N(%) = 800(100.0%)

측정내용	수강실태					
	교과	비교과	교과/비교과(중복)	미수강	총계	
창업인식	매우 부정적	0 (0.0%)	0 (0.0%)	0 (0.0%)	9 (1.5%)	9 (1.1%)
	다소 부정적	4 (13.3%)	10 (12.3%)	7 (8.2%)	66 (10.9%)	87 (10.9%)
	보통	12 (40.0%)	12 (14.8%)	18 (21.2%)	181 (30.0%)	223 (27.9%)
	다소 긍정적	10 (33.3%)	34 (42.0%)	35 (41.2%)	220 (36.4%)	299 (37.4%)
	매우 긍정적	4 (13.3%)	25 (30.9%)	25 (29.4%)	128 (21.1%)	182 (22.8%)
	총계	30 (100.0%)	81 (100.0%)	85 (100.0%)	604 (100.0%)	800 (100.0%)
평균	3.47	3.91	3.92	3.65	3.70	
표준편차	0.900	0.977	0.916	0.980	0.976	
차이검증 (ANOVA/Pearson)	F=3.864(0.009) / Chi-Square=19.530(0.077)					

\*중복은 창업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모두 수강한 대상을 의미한다.

#### 3.2.2 창업교육 참여유형에 따른 창업의사

창업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4%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33.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체 평균은 2.76으로 현재 창업의사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교과 및 비교과를 중복 수강한 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사 평균이 3.31로 창업교육 미수강생(평균 2.63), 교과과정 수강생(평균2.73) 그리고 비교과과정 수강생(평균3.15)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표 8> 수강실태별 창업의사

N(%) = 800(100.0%)

측정내용	수강실태				총계	
	교과	비교과	교과/비교과(중복)	미수강		
창업의사	전혀 없음	9 (30.0%)	15 (18.5%)	10 (11.8%)	134 (22.2%)	188 (19.4%)
	별로 없음	6 (20.0%)	16 (19.8%)	17 (20.0%)	166 (27.5%)	239 (24.6%)
	보통	3 (10.0%)	14 (17.3%)	17 (20.0%)	147 (24.3%)	215 (22.2%)
	다소 있음	8 (26.7%)	14 (17.3%)	19 (22.4%)	105 (17.4%)	184 (19.0%)
	매우 있음	4 (13.3%)	22 (27.2%)	22 (25.9%)	52 (8.8%)	144 (14.8%)
	총계	30 (100.0%)	81 (100.0%)	85 (100.0%)	604 (100.0%)	800 (100.0%)
평균	2.73	3.15	3.31	2.63	2.76	
표준편차	1.484	1.484	1.363	1.243	1.312	
차이검증 (ANOVA/Pearson)	F=9.625(0.000) / Chi-Square=48.42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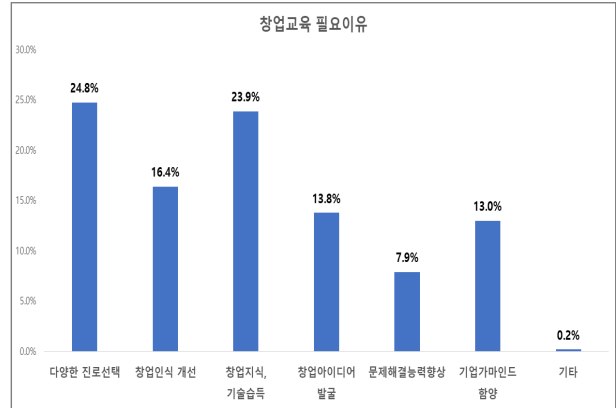


비 중(평균 4.08)과 창업의사 없음(평균 3.57)보다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고).

<표 11> 창업교육 필요성

N=517

변수	측정내용	창업경험			총계
		창업준비 중	창업 중	창업의사 없음	
창업교육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0 (0.0%)	0 (0.0%)	9 (1.9%)	9 (1.7%)
	필요없다	2 (7.7%)	1 (4.8%)	43 (9.1%)	46 (8.9%)
	보통	4 (15.4%)	5 (23.8%)	159 (33.8%)	168 (32.5%)
	필요하다	10 (38.5%)	3 (14.3%)	188 (40.0%)	201 (38.9%)
	매우 필요하다	10 (38.5%)	12 (57.1%)	71 (15.1%)	93 (18.0%)
총계		26 (100.0%)	21 (100.0%)	470 (100.0%)	517 (100.0%)
평균		4.08	4.24	3.57	3.63
표준편차		0.93	1.00	0.92	0.94
차이검증 (ANOVA/Pearson)		F=8.499(0.000) / Chi-Square=34.013(0.000)			



<그림 4> 창업교육 필요이유

### 3.3.8. 대학 창업지원 인지도와 필요도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를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 및 창업 준비자’ [그룹 A]와 현재 창업의사가 없거나 미래 시점에 창업의사가 있는 ‘현재 창업자 및 창업 준비자 외’ [그룹 B]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필요도 응답 결과로는 [그룹 A]와 [그룹 B] 모두 자금 및 투자지원(4.39, 4.1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도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창업전문가 멘토링 등 컨설팅 또한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13> 참고).

### 3.3.7. 창업교육 필요이유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 ‘보통~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728명(결측 5명)의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23.9%로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고).

<표 12> 창업교육 필요이유

N=723, 복수응답(결측치 5)

변수	측정내용	창업교육 필요 (N:723)	
		빈도(%)	순위
창업교육 필요이유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동기부여	371(24.8%)	1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기술 습득	358(23.9%)	2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창업문화 확산	246(16.4%)	3
	창업아이디어 발굴	206(13.8%)	4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함양)	195(13.0%)	5
	문제해결능력 향상	118(7.9%)	6
	기타	3(0.2%)	7
	총계	1,126(100.0%)	

<표 13>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

변수	현재 창업자 및 창업준비자 [그룹 A] N=47			현재 창업자 및 창업준비자 외 [그룹 B] N=753		
	인지도 평균(순위) [a]	필요도 평균(순위) [b]	차이 [b-a]	인지도 평균(순위) [c]	필요도 평균(순위) [d]	차이 [d-c]
스카우팅	2.72(12)	4.04(11)	1.32	1.75(16)	3.72(17)	1.97
네트워킹 지원	3.00(4)	4.28(3)	1.28	1.84(10)	3.91(7)	2.07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04(3)	4.26(5)	1.22	2.00(4)	3.88(8)	1.88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3.13(1)	4.30(2)	1.17	2.27(1)	4.09(2)	1.82
시제품제작 지원	2.94(5)	4.19(6)	1.25	1.76(15)	3.81(13)	2.05
자금 및 투자지원	2.83(9)	4.40(1)	1.57	2.01(3)	4.20(1)	2.19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3.06(2)	4.28(3)	1.22	2.00(4)	4.08(3)	2.08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2.64(16)	4.06(10)	1.42	1.72(18)	3.98(4)	2.26
마케팅 및 판로 지원	2.51(18)	4.15(7)	1.64	1.79(14)	3.86(11)	2.07

R&D 지원	2.53(17)	3.81(17)	1.28	1.71(19)	3.71(18)	2.00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2.87(8)	3.89(15)	1.02	2.14(2)	3.82(12)	1.68
창업휴학제	2.81(10)	3.89(15)	1.08	1.98(8)	3.88(8)	1.90
창업실습	2.72(12)	4.09(9)	1.37	1.91(9)	3.88(8)	1.97
창업현장 실습	2.81(10)	4.04(11)	1.23	2.00(4)	3.93(6)	1.93
창업학기제	2.89(7)	4.04(11)	1.15	1.82(13)	3.79(14)	1.97
창업학점 교류제	2.45(19)	3.72(18)	1.27	1.73(17)	3.73(16)	2.00
창업연계 전공	2.66(15)	4.00(14)	1.34	1.80(13)	3.75(15)	1.95
창업장학금	2.70(14)	4.15(7)	1.45	2.00(4)	3.95(5)	1.95
창업인재 전형	2.91(6)	3.72(18)	0.81	1.81(12)	3.45(19)	1.64
전체 평균	2.80	4.07	1.27	1.90	3.86	1.97

<표 13>의 인지도와 필요도 평균을 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보다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의 창업지원제도를 통한 실질적·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지원제도의 성격, 대상, 지원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학은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홍보 및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또한 [A 그룹]이 [B 그룹]에 비해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필요도가 0.21점(A 그룹 4.07>B 그룹 3.86), 인식도가 0.90점(A 그룹 2.80 > B 그룹 1.90)만큼 높게 나타났다.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준비 중에 있는 대상자(A 그룹)의 경우 필요도와 인식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서 교내 창업지원제도를 상대적으로 적극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9.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개선점**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점에 관한 응답으로 ‘창업지원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가 17.7%, ‘단계별 교육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15.9%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표 14> 참고).

<표 14>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개선점

N=47, 복수응답

측정내용	창업단계		총계	
	창업 준비 중	창업 중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개선점	창업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9 (12.3%)	2 (5%)	11 (9.7%)
	단계별 교육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1 (15.1%)	7 (17.5%)	18 (15.9%)
	창업지원 통합관리 조직 구축	9 (12.3%)	3 (7.5%)	12 (10.6%)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성 배양	11 (15.1%)	3 (7.5%)	14 (12.4%)
	창업지원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10 (13.7%)	10 (25%)	20 (17.7%)
	창업포털과 같은 관리 시스템 구축	7 (9.6%)	5 (12.5%)	12 (10.6%)
	학내 창업 분위기 조성	6 (8.2%)	7 (17.5%)	13 (11.5%)
	교수님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고취	10 (13.7%)	2 (5%)	12 (10.6%)
	기타	0 (0.0%)	1 (2.5%)	1 (0.9%)
	총계	73 (100.0%)	40 (100.0%)	113 (100.0%)

**IV. 결론 및 토의**

**4.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만큼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의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대학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표 7>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2%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2%보다 5배), 여전히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부정적 응답 44%, 긍정적 응답 33.8%).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창업활동을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창업 지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절차적 복잡성은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원활한 자금 사용을 어렵게 하고, 지원금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창업의 꿈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절차적 복잡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학

생들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도와줄 전문 인력의 상시 상주가 요구되며 단순히 창업 공간 및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과 같이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구축 및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창업 기회이유로는 ‘창업실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 우선’이 24.9%로 나타났다(<표 10>). 이는 창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와는 달리 창업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창업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취업 우선’이라는 응답은 창업과 취업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나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인 ‘취업을 견인하는 필수교육’으로서의 창업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업 고려 요인으로는 ‘업무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업무 자율성)’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 선호’가 19.7%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창업의 고려 이유가 ‘아이디어 사업화’나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아닌 ‘높은 소득’과 ‘업무의 자율성’인 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창업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업지원제도의 확대에 앞서서 창업에 대한 개념, 필요성,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창업교육의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 번째, 창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 1순위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위가 기술개발 11.8%로 나타났다(<그림 3>). 강혜정(2015)은 대부분의 창업아카데미사업 협약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연속적인 창업교육이 어렵고, 지원금이 타 사업에 비해 적어서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은 자금 및 투자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 인력 구축을 통해 민간지원제도 및 정부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탐색하고 지원·유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다른 주요 아시아 대학에 비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거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실제 창업생의 상당수는 창업실패 이후에도 다른 벤처나 지속적인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의 경우는 소수로 선발된 만큼 창업에 종사한 인원의 성공률이 높다(백서인, 2017). 실제 대학 창업정책이 청년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창업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 자원의 증척되는 부분을 사업 기능별로 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 창업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학의 창업 전담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대학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창업교육 필요성은 ‘창업 중’>‘창업 준비 중’>‘창업 의사 없음’순으로 나타났다(<표 12>). 또한, 창업교육 필요이유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23.9%로 나타났다(<표 13>). 창업교육 필요성이 창업경험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진로나 인생설계에 있어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를 통해 대학 내 홍보의 중요성 및 창업전반의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표 13> 및 <표 14>). <표 13>을 보면 두 그룹에서 각 지원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업 단계별로 요구하는 지원제도가 다를 것을 의미하며 학생창업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표 14>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는 공급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교내 홈페이지, 교내 현수막을 통한 일시적 홍보로 학생들은 정보 수집에 한정적이다(유세진, 2020). 그러므로 단순히 집약적인 정보를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으로만 홍보를 집행하기보다는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매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도달률이 높은 SMS 문자메시지와 대학 애플리케이션의 Push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사용률이 높은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특정 매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기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던 방법에서 변화되어 실제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자를 D대학의 대학생들로 제한함으로써 설문 대상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요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남긴다. 첫째, 향후 학년별, 전공별, 지역별 비교 및 종단적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 대상자의 변화 및 실제 창업 행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주요 대학과 해외 선진 대학 간 창업정책,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인프라, 창업효과



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창업정책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대학 창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방안 도출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CEO스코어(2019). *기업매출추이*. Retrieved 2020.03.12 from <http://www.ceoscore.co.kr/>.
- 강혜정(2015).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의 실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교육부(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김용태(2015). 대학 내 창업지원 주체간 연계방안 모델 연구. *대한 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77-81.
- 김춘호·양동우(2018). 대학생의 창업교육참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와 교내창업지원제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8(1), 50-75.
- 남정민·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 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 백서인(2017).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 비교: 칭화대학교, 도쿄공업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9(3), 93-116.
- 유세진(2020). *대학의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창업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경주·김은영(2018). 대학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특히, 창업교육, 창업동아리의 개별효과와 상호보완효과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1(6), 108-117.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제 2020-1 호*.
- 창업진흥원(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kised.or.kr/>.
- 통계청(2019). *창업취업률추이*. Retrieved 2020.03.11 from <http://www.index.go.kr/>.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 허선영·장후은·이중호(2017). 대학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 75-84.
- 홍종득·강현곤(2016). 한국대학 창업교육 현황 연구: 학부 대학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중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3-165.
- Baek., S. I.(2017). Comparative Research on University Start-up Policy: Tsinghua Universit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as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9(3), 93-116.
- CEO score(2019). *Corporate sales trend*. Retrieved 2020.03.12 from <http://www.ceoscore.co.kr/>.
- Good, M., Knockaert, M., Soppe, B., & Wright, M.(2018). *The technology transfer ecosystem in academia. An organizational design perspective*. Technovation.
- Hayter, C. S., Nelson, A. J., Zayed, S., & O'Connor, A. C. (2018). Conceptualiz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ecosystems: a review, analysis and extension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1-44
- Heo, S. Y., Jang, H. E., & Lee, J. H.(2017). Explo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75-84.
- Hong, J. D., & Gang, H. G.(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Focused on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and non-degree courses.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63-165.
- Huang-Saad, A., Fay, J., & Sheridan, L.(2017). Closing the divide: accelera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catalyzing the university entrepreneurial ecosystem with I-Corp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 (6), 1466-1486.
- Kang, H. J.(2015). *Analysis study of the college student start-up academy business*. Department of Education. Master's thesis,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Kim, C. H., & Yang, D. W.(2018).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Education particip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Satisfaction and Moderate effect of Startup Support System.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Conferences*, 2018(1), 50-75.
- Kim, Y. T.(2015). A Study on the Model of Connectivity between the Subjects for Supporting Start-ups in Universities.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77-81.
- Statistics Korea(2019). *Youth employment rate trend*. Retrieved 2020.03.11 from <http://www.index.go.kr/>.
- Lee, K. J., & Kim, E. Y.(2018).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cosystems: Discrete and complementary effects of pat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 entrepreneurship club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1(6), 108-117.
- Miller, D. J., & Acs, Z. J.(2017). The campus as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University of Chicago. *Small Business Economics*, 49 (1), 75-95.
- Nam, J. M., & Lee, H. S.(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2(6), 111-122.
- Yu, S. J.(2020).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of Undergraduates and Needs Analysi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Lee, Sung Ho\*  
Kim, Jeung Eum\*\*  
Nam, Jung Mi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statu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major project of recent university policy, and to present policy tasks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by analyzing problems. A survey on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about start-up was carried out from 800 students including those on leave of absence at D university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about start-up was highly positive due to various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from universities, but it was surveyed that university students have still low willingness to challenge start-up. Second, the biggest reason why university students avoid the start-up is 'the risk of start-up failure' at 40.8%, followed by 'Prioritizing getting a job' at 24.9% and 'lack of knowledge on start-up' at 13.4%. Also, difficulty from those who have already started business was mainly financing at 26.9%. The second was 14.0% for securing manpower, and the third was 11.8%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ird, the necessity of start-up education was in the order of 'starting-up' > 'preparing to start-up' > 'no intention to start-up'. The reason for the necessity of start-up education was 'motivation for various career choices' with 24.8%, followed by 'acquisition of various knowledge and skills for start-up' with 23.9%. Finally, effort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ublic relations for start-up policies in universities and figure out the problems of the start-up support scheme. Th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should reflect the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tual policy consumers, by shifting away from the method provided by existing suppliers.

*KeyWords: Start-up Ecosystem, Start-up Physician, Start-up Motivation, Start-up Recognition, Start-up Environment*

---

\* First Author, Master course, Department of Global Venture, Dankook University, lsh69041@gmail.com

\*\* Co-author, Bachelor cours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wjddmadlekf@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Venture,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